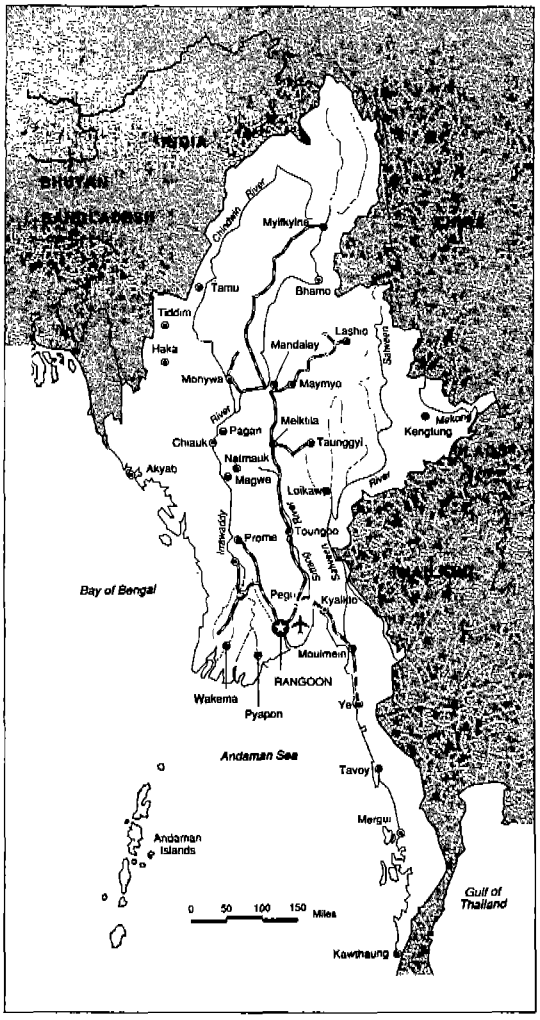
미얀마 연방국

<3>

卞 鍾 達

한국전력기술(주) 위촉기술역



1. 론지 예찬

미얀마에서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100%가 「론지」라는 고유의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론지라는 의상은 인근국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또는 방글라데시 등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통치마처럼 생긴 복장으로서,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신기한 복장은 아니지만 거의 100%의 착용률이라고 한다면 미얀마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은 공항에 있는 관리나 국영 호텔의 보이 정도일 뿐이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집에서 쉴 때 또는 노동을 할 때, 심지어는 운동을 할 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론지 착용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론지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의상이며, 크고 작은 사이즈가 없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호환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매우 경제적인 의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론지에 대한 특성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너무나도 단순한 론지

론지는 너무나도 단순하다. 끈, 단추, 호크, 핀 또는 고무줄과 같은 부착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허리띠와 같은 악세서리가 전연 필요없는 것이다. 폭이 약 115㎝되는 원단 헝겊을 약 2m 길이로 자르고, 양쪽의 자른 곳을 서로 맞대어 재봉틀로 봉합시킨 원통형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것이다. 상하 좌우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의상인 것이다.

이것을 통치마를 입듯이 다리를 한쪽씩 들어 이 원통 속에 넣어서 양쪽 다리를 모두 넣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로 치켜 올려서 배꼽부위, 즉 론지를 고정하려는 허리통까지 올린다. 그리고는 발끝

을 관찰하면서 이 론지의 길이를 조정한다. 적당한 길이로 조정한 후에 고정하려는 허리둘레에서 여분의 자락을 접든지 말아서 허리춤을 기점으로 하여 론지의 길이가 적당하게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길이를 재차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위 부분을 적당히 말아서 론지의 길이가 알맞게 되면 이것을 허리춤에서 고정하여야 한다. 론지를 두 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벌리고, 허리에 적당한 압력을 가할 정도로 앞으로 당겨서 남는 자락을 앞에서 포갠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포개진 부분의 윗자락을 서로 교차시켜 새끼를 꼬듯이 몇 바퀴 꼬고 이것을 밖에서 아래로 말아 아래에서 위로 넣어 고정시킨다.

처음 이렇게 입으면 언제 흘러 내려갈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해서 별도의 허리띠로 묶어보기도 하지만 아무리 해도 끝자락을 돌돌 말아 찔러넣어 고정시키는 것이 제격인 것 같다. 여기 사람들도 가끔 허리춤에서 론지를 다시 고쳐 고정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정시킨 것은 아무리 숙달되어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완되어 느슨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사이즈가 필요 없는 론지

론지는 크고 작은 사이즈가 필요 없다. 키가 작은 사람은 허리춤에서 많이 말아 올리면 되고, 허리가 가는 사람은 허리춤에서 겹치는 부분을 넓게 하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할 때 전연 사이즈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색상과 가격만 맞으면 되는 것이다. 사이즈별 종류가 없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과정이 매우 단순화되어 효율적이다. 사이즈별로 구색을 갖출 필요가 전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론지는 45인치 폭의 천을 약 2.5야드 길이로 절단한 것으로, 양쪽 절단면이 서로 봉합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다. 구입할 때 그 자리에서 봉합해 줄 것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받고 재봉틀로 그 자리에서 봉합하여 준다.

다. 가장 경제적인 론지

론지는 앞과 뒤 그리고 아래와 위의 구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돌려가면서, 또 아래 위를 바꾸어 가면서 입을 수 있어 많이 마모되는 부위를 이동시켜 가면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연한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킬 수 있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의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제작과정에서도 전연 형겊의 자투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산된 원단을 직각방향으로 절단만 하여 100%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가 단순하여 복잡하지 않아 끈이나 단추같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무 것도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탁하기 쉽고, 다림질하기는 너무나 간단하다. 접어서 보관하기도 이 론지보다 쉬운 의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운 나라에서 론지를 착용하면 하반신에 대한 통풍이 잘되어 시원하기 그지없고 앉을 때에도 이것을 쉽게 걷어 올릴 수 있는 등 융통성이 많아 편안하다. 또한 앞에서 접어서 고정시키기 때문에 배를 위시한 주요기관의 보호에도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론지를 입는 미얀마 사람들의 표준적인 스타일은 여성이면 목 부분이 많이 노출되는 블라우스, 남성은 소매와 깃이 달린 셔츠를 입게 되며, 발에는 발가락에 끼우는 끝이 달린 샌들을 신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론지를 허리에서 고정시킬 때 앞에서 불룩하게 처리하지 않고 허리옆에서 고정하게 되며, 착용하는 론지의 색상도 컬러풀하고, 특히 허리의 선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여인들이 론지 자락을 하늘거리며 걷는 모습은 매우 우아하게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복잡한 민족구성

미얀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미얀마의 총 인구는 1986년 현재 약 3,700만명이며, 그중 3분의 2는 버마민족이지만 그 나머지는 수많은 소수민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버마족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중국의 운남성으로부터 남하해서 이라와디강 유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우량이 많은 남부에서는 벼농사를, 우량이 적은 내륙부에서는 콩, 땅콩, 깨, 목화, 사탕수수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및 스리랑카와 같은 상좌부 불교를 신앙하고 있으며, 남자는 일생에 한 번은 불문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사회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식자율(識字率)은 건국 평균으로 85%로서 현저하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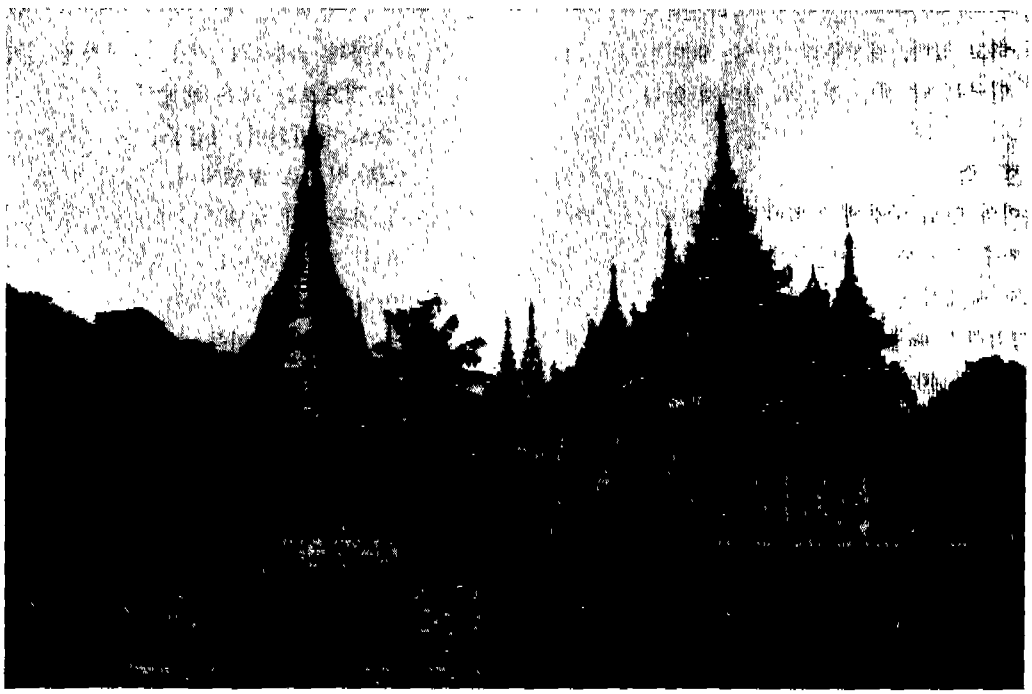
나. 샨 족

미얀마의 동부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샨고원의 주요 민족으로서, 태국과 같은 계열의 샨어를 사용한다. 버마족과 마찬가지로 상좌부 불교를 신앙하고 있다. 남성은 버마족과는 달리 폭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다. 샨족의 거주지는 계곡을 따른 평지가 중심으로 관개에 의한 벼농사를 하고 있다. 샨주의 인구는 약 390만명이다.

다. 카렌족

살루윈강 유역의 카렌주, 그 상류의 가야주, 미얀마 동부 산지와 이라와디강 하류의 델타지대에 밀집하여 있다. 평지에 거주하는 카렌족의 85%는 불교도이며, 나머지는 기독교도이다. 산지에 거주하는 카렌족에는 애니미스트도 있다. 카렌족은 소수민족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아 총 인구의 약

공원과 미얀마 글씨



서쪽 입구에서 바라본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10%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라. 몬 족

미얀마 남부의 몬주의 주요 민족이며, 몇 세기에 걸쳐서 버마족과 항쟁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몬족은 버마족보다 먼저 이 땅에 정착하여 불교를 수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등 고도의 문명을 지니고 있었으나 18세기 중엽에 있은 버마족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 급속도로 쇠퇴하였다. 몬주의 인구는 160만이며, 몬어를 모어로 하는 주민의 수는 5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버마족이나 샨족과 마찬가지로 상좌부 불교를 신앙하고 있다. 복장이나 풍속에 있어서는 버마족과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마. 카친족

미얀마의 북부로서 중국의 운남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친주의 주요 민족이다. 카친족은 산지에 거주하면서 전통적으로 화전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계곡으로 내려와서 버농사도 하게 되었다. 평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침례교도들의 포교 활동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산지거주 주민들은 애미니스트로서 정령숭배를 하고 있다. 카친주의 인구는 90만명이나 카친족의 인구는 약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다.

바. 친 족

미얀마와 인도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친 구릉(丘陵)에 거주하는 주요 주민들이다. 인구는 약 40만명으로서 북에서 남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으나, 지형이 험악하기 때문에 방언의 분화가 현저하여 친 주내에서만도 40개 이상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 19세기 이후 행하여진 선교사의 활동에 의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으나 전체의 7할은 아직 애미니스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장제(首長制)는 남부와 비교해서 북부쪽이 잘 발달하여 있다. 친족은 산허리의 삼림을 벌채하여 화전경작을 하고 있으나 평지에 내려와서 수전(水田)경작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평지거주의 친족은 여자들 사이에서 얼굴에 문신을 하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사. 기타 소수민족들

샨, 카렌, 카친, 몬, 친의 5개 민족들은 각기 자기들의 주를 가지고 있으나 인구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주를 가지지 못하는 민족도 있다. 친드윈강 상류의 오지에는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가족이 아직도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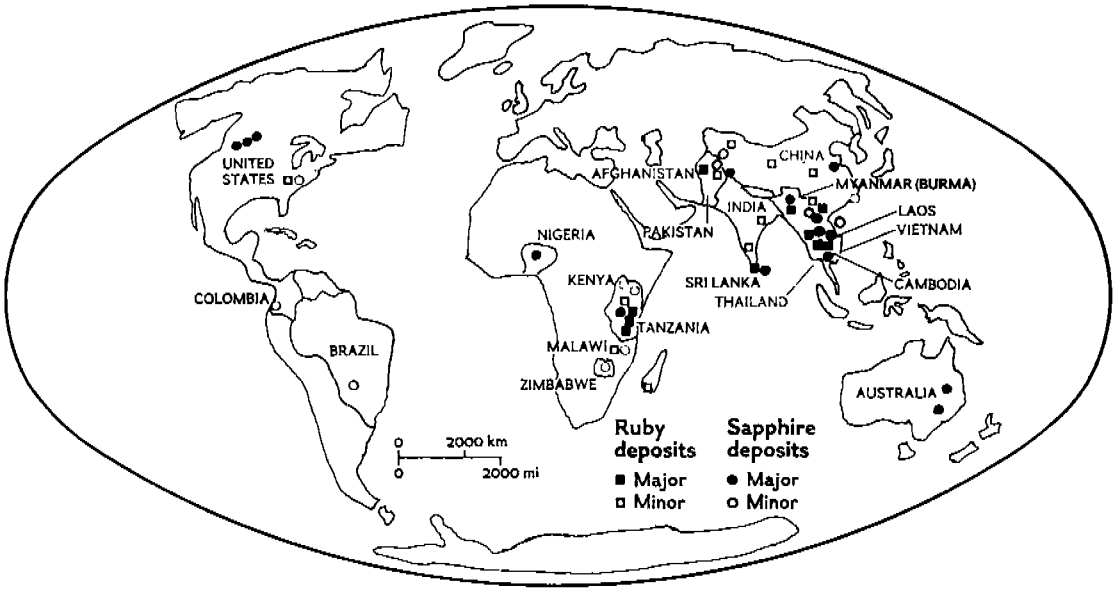
이와 같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얀마는 문제도 많다. 어떤 민족은 미얀마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위하여 정부군과의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웃나라와의 국경지대는 이들 반정부 무장 반도 조직의 거점이 되어 특히 외국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 어떤 전문가는 미얀마 정부의 영향력은 전국의 5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루비와 사파이어

미얀마는 루비와 사파이어 등 보석의 세계적인 주요 산지이다. 공식적으로 미얀마에서 산출되는 보석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정부에서는 5개소의 노천 채광장과 2개소의 지중 채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채굴된 보석광석은 수도인 양곤으로 운반되며, 1급품은 외국화폐에 의한 경매용으로 별도로 보관되며, 2급품과 3급품만이 보석으로 가공되어 국내소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보석은 400평방마일에 달하는 보석원석 산지를 관장하고 있는 밀수업자와 암상인들 손에 의하여 정부 통제를 벗어나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매년 2월이 되면 양곤의 최고급 호화호텔인 인야 레이크 호텔에서 미얀마 광산성 주최의 미얀마산 보석원석 경매가 성대하게 이루어진다. 이맘때가 되면 양곤의 호텔은 세계 각국의 보석 거래인들로 붐비게 된다.

현재 미얀마의 수출품 중 쌀, 티크 목재 등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정부 보유외화가 격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 매각의 수익은 귀중한 국가재원



루비와 사파이어의 세계 주요 산지 분포도

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얀마는 다른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주석, 텅스텐, 은 등을 비롯하여 석유와 천연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4. 에필로그

미얀마는 주변부에 소수민족의 무장 반정부 반도 판장지역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부에는 전세계 마약거래량의 4분의 3을 생산한다는 유명한 황금의 삼각지대가 걸쳐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육로로는 입국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육로에 의한 입국은 금지하고 있어 비자에도 「LAND ROUTE NOT PERMISSIBLE」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것이다.

미얀마는 오랜 세월동안의 쇄국정책으로 외부와의 왕래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도 매우 불편하다. 전화는 초저녁에 신청하면 새벽이 거의 되어야 국제통화가 가능하고 그것도 3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다. 텔렉스도 그 신뢰도가 낮아 매우 불편한 것이다. 우편물은 더욱 신뢰도가 낮아 이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는 거리상으로는 방콕으로부터 40분 정도의 비행거리이지만 외부와의 접촉에 있어서는 머나먼 오지(奧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얀마로부터의 출국도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니었다. 밍가라돈 국제공항에서 탑승하였던 미얀마 항공사의 포커 F-28기에 오르게 되었다. 정시에 출발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으면서 기내에 들어가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륙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활주로 끝의 출발지점까지는 갔으나 가장 중요한 이륙을 하지 못하고 몇 번 발진을 시도하다가는 포기를 하였는지 공항청사 근처로 되돌아 와서 승객들을 다시 내려놓아 대합실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무려 2시간 이상이나 지난 후에야 다른 항공기가 도착하여 그 항공기편으로 미얀마를 무사히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